

**1 개요**

멸치잡이 때 만선이 되도록 사람들을 도와주는 도깨비 이야기이다.

제주말 '도채비'(도체비)는 표준어 '도깨비'에 해당하고, 제주말 '멜'은 표준어 '멸치'를 뜻한다.

**2 내용**

구좌읍 한동리 지경에 도깨비가 많이 나타난다는 말이 있다. 멸치잡이를 하기 전에 나이든 공원이 제물을 준비하고 도깨비를 청해서 대접했다. 음식을 대접받은 도깨비는 보답으로 멸치어장에 풍년이 들도록 도와주었다. 다음 해에는 마을에서 도깨비 대접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고, 멸치어장도 흉년이 들었다.

**3 특징****4 핵심어**

멸치, 도깨비, 한동, 제물, 계장, 공원, 영감, 응감, 대축(옥수수), 범벅, 오메기떡, 멸치어장

**5 원전 서지사항**

멜 잡는 도채비(평대리지편집위원회, 《평대리 : 비자림 군락의 촌》, 1999)

**6 관련 자료**

도깨비 이야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도깨비(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도깨비(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도깨비(Ⅱ)(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도채비(1)(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